

경제의 서비스업화-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지난 10여년간 국내의 산업구조는 지속적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는 경제의 ‘서비스업화’가 진행되어 왔는데,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으로 변모해가면서 이러한 현상은 향후 심화될 것으로 보임.
- 경제의 ‘서비스업화’는 서비스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우리경제의 고용창출과 생산증가능력이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울의 경우 전국에서 서비스업화가 가장 빠르다는 점에서 서비스업 활성화의 중요성이 더욱 큼.

서비스업의 양적 성장으로 2002년 기준 전체 사업체의 86.6% 차지

- 90년대 초반 이미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는데, 이후 다시 십여년 동안 서비스 산업화가 더욱 심화되었음.
 - 제조업은 10년 동안 종사자가 -12.7% 감소하여 2002년 현재 23.2%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서비스업(도소매업~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십여년 동안 사업체의 경우 38%, 종사자의 경우 37%라는 급격한 성장을 거쳐, 2002년 현재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은 사업체 기준 86.6%, 종사자 기준 71.2%를 차지하고 있음(서울의 경우).
- 서비스업 중에서도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고,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는 보건 및 사회복지, 오락·문화·운동관련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카센터, 이미용업 등)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표 1] 국내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1993-2002)

(단위 : 개, 명)

구 분	사업체					종사자				
	93	98	2002	증감률		93	98	2002	증감률	
				93~98	93~02				93~98	93~02
전산업	2,304,250	2,785,659	3,131,963	20.9	35.9	12,245,073	12,416,558	14,608,322	1.4	19.3
제조업	281,590	279,454	333,921	-0.8	18.6	388,496	2,986,971	3,392,865	-23.1	-12.7
서비스업	1,965,686	2,436,516	2,713,705	24.0	38.1	7,589,403	8,580,204	10,400,948	13.1	37.0

자료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출처 : 정병순, 경제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비즈니스서비스업 발전방향(2004)에서 재인용.

○ 서울시의 경우 서비스 특화현상이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입지상 계수(LQ: Location Quotient)¹⁾가 1보다 크면 특화된 산업이라 할 수 있는데, 서울의 경우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서비스업의 특화도는 계속해서 높아져 왔음.

[표 2] 서울시 서비스업 종사자수 변화추이

(단위: 명, %)

수 록 시점	전국			서울특별시			
	전산업	서비스업	전산업대비 비중	전산업	서비스업	전산업대비 비중	LQ지수
1995	13,634,273	8,241,837	60.45	3,874,597	2,629,182	67.86	1.09
1996	14,006,754	8,479,339	60.54	4,045,537	2,655,639	65.64	1.06
1997	13,470,343	8,462,913	62.83	3,758,459	2,588,617	68.87	1.07
1998	12,416,558	7,994,609	64.39	3,378,615	2,379,906	70.44	1.07
1999	12,920,289	8,404,573	65.05	3,367,652	2,426,566	72.06	1.09
2000	13,604,274	8,975,426	65.98	3,574,824	2,657,799	74.35	1.10
2001	14,109,641	9,416,597	66.74	3,763,794	2,837,835	75.40	1.11
2002	14,608,322	9,899,330	67.77	3,805,462	2,904,199	76.32	1.11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출처 : 정병순(2004)에서 재인용.

1) 입지상 계수 공식은 다음과 같음. $LQ_i = \frac{E_i^r / E^r}{E_i^n / E^n}$ E_i^r : 지역 r의 산업 i에 종사하는 고용자수, E^r : 지역 r의 전체 고용자수, E_i^n : 전국의 산업 i에 종사하는 고용자수, E^n : 전국의 전체 고용자수

- 2000년 OECD국가들의 취업구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업 비중이 아직 낮다는 점에서 향후 서비스업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표 3] 취업구조의 국제비교(2000년) (단위 : %)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영 국
농림어업	10.9(13.4)	5.1	2.6	2.7	1.5
광업	0.1(0.1)	0.1	0.4	0.4	0.4
제조업	20.1(19.2)	20.5	14.7	23.3	17.0
전기·가스·수도	0.3(0.4)	0.5	1.1	0.8	0.7
건설업	7.5(7.5)	10.1	7.0	8.5	7.2
서비스	61.1(59.4)	63.7	74.2	64.3	73.2
합계	100.0(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영국과 미국은 16세 이상 인구 대상이고, 나머지 국가는 15세 이상 인구대상
 2) 조사기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한 자를 기준으로 한 취업구조이며, ()내는 man-year 기준에 의한 취업구조임

자료 :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출처: 정병순(2004)에서 재인용.

서비스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점차 증대

-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고용증대 효과가 제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0년 현재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한두가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도소매업이 10억원당 46.5명, 음식점 및 숙박업이 50.0명,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이 40명 이상으로 높음.
 - 제조업의 경우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 제품, 인쇄 출판 및 복제, 가구 및 기타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10억원당 20명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서비스업보다 낮은 수준임.

[표 4] 업종별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

구 분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90	'95	'00	연평균 증감률(%)		'90	'95	'00	연평균 증감률(%)	
				'90~'95	'95~'00				'90~'95	'95~'00
제조업	39.0	21.5	14.4	-11.2	-7.7	28.1	15.9	9.7	-10.8	-9.4
서비스	44.6	34.1	24.3	-5.2	-6.6	27.7	21.6	15.4	-4.9	-6.5
도소매	70.4	58.8	46.5	-3.5	-4.6	26.0	23.3	20.2	-2.2	-2.8
음식점및숙박	74.2	63.5	50.0	-3.1	-4.7	34.8	27.9	19.8	-4.3	-6.6
운수및보관	32.3	24.4	19.5	-5.5	-4.4	24.7	18.4	13.9	-5.7	-5.5
통신및방송	23.2	14.1	10.1	-9.5	-6.5	21.6	12.5	7.6	-10.4	-9.5
금융및보험	29.5	25.3	15.9	-3.0	-8.9	25.7	23.1	14.6	-2.1	-8.8
부동산및사업서비스	24.9	17.1	10.9	-7.2	-8.6	17.9	12.5	8.5	-6.9	-7.4
공공행정및국방	42.7	29.7	20.7	-7.0	-7.0	38.4	26.6	18.7	-7.1	-6.8
교육및보건	37.5	31.8	26.8	-3.2	-3.4	32.0	27.2	22.6	-3.2	-3.6
사회및기타서비스	75.2	59.0	40.2	-4.7	-7.4	38.0	30.0	20.7	-4.6	-7.2
전산업	42.7	27.9	20.1	-8.2	-6.3	26.8	18.1	12.4	-7.5	-7.3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출처 : 정병순(2004)에서 재인용.

- 고용증대 효과와 함께,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액도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 증가속도는 GDP 증가속도와 비슷한 수준임.
 - GDP는 지난 1980~1990년간 8.6%, 1990~2001년간 6.0%가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1980~1990년 사이에 8.3%, 1990~2001년 사이에 6.1% 증가하여 GDP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일부 서비스 업종들, 특히 통신서비스, 금융 및 보험, 사업 서비스, 문화·오락의 경우 1990~2001년에 이전보다 낮아졌으나 여전히 전체 평균보다는 높은 부가가치 생산액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표 5] 업종별 부가가치 생산액 변화 (단위 : 10억원<1995년 가격>, %)

업종	1980	1990	2000	2001	1980-1990	1990-2001
GDP계	114,978	263,430	476,269	500,985	8.6	6.0
서비스업소계	60,047	133,213	243,174	255,014	8.3	6.1
도소매	9,953	26,951	46,563	48,019	10.5	5.4
음식및숙박	3,098	6,626	11,907	12,981	7.9	6.3
운수및보관	6,694	13,435	21,927	22,871	7.2	5.0
통신서비스	863	3,190	19,349	21,882	14.0	19.1
금융및보험	3,012	12,512	30,924	32,244	15.3	9.0
부동산및임대업	10,055	21,770	37,664	38,984	8.0	5.4
사업서비스	1,803	6,604	15,272	16,685	13.9	8.8
공공행정	10,946	13,956	16,574	16,473	2.5	1.5
교육서비스	9,334	15,454	19,700	20,074	5.2	2.4
보건및복지	1,105	5,030	7,594	7,838	16.4	4.1
문화및오락	928	3,280	8,358	9,186	13.5	9.8
기타공공서비스	1,927	3,995	6,502	6,915	7.6	5.1
가사서비스	326	409	840	860	2.3	7.0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출처 : 정병순(2004)에서 재인용.

- 각 산업의 중간투입계수(각 산업이 다른 산업의 생산물은 어느 정도 중간 투입으로 사용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를 보면, 다른 산업의 서비스업 의존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6).
 - 전산업에 대한 서비스 투입계수는 1985년 0.14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00년 0.20에 이르고 있음. 이에 비해, 제조업 투입은 1985년 0.33에서 2000년 0.32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투입 모두 1985-2000년 사이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제조업(0.12에서 0.13)에 비해 서비스업의 중간투입계수의 증가(0.18에서 0.25로)가 두드러짐.
 - 유사하게 제조업에 대해 제조업의 투입계수와 서비스업의 투입계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업(0.47에서 0.48)에 비해 서비스업(0.11에서 0.13)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 큼.

-전체적으로 말해, 전산업은 물론 서비스업과 제조업 각각의 생산이 서비스산업으로부터 중간 투입에 대한 의존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6] 부문별 투입계수

구 분		1985	1990	1995	2000
전산업	제조업	0.33	0.32	0.30	0.32
	서비스업	0.14	0.16	0.17	0.20
	기타	0.10	0.09	0.08	0.08
	중간투입계	0.58	0.56	0.55	0.59
제조업	제조업	0.47	0.46	0.44	0.48
	서비스업	0.11	0.13	0.13	0.13
	기타	0.15	0.12	0.10	0.10
	중간투입계	0.73	0.72	0.68	0.71
서비스업	제조업	0.12	0.11	0.10	0.13
	서비스업	0.18	0.20	0.23	0.25
	기타	0.04	0.04	0.03	0.04
	중간투입계	0.35	0.35	0.36	0.41

자료 : 한국은행, 2000년 산업연관표 재가공

출처 : 정병순(2004)에서 재인용.

국내 서비스업 생산성 낮아

- 서비스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우리 서비스업은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해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경우,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던 분야인 제조업의 경우에조차 노동생산성은 2000년을 기준으로 그리스와 대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1.5~2.5배에 달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서비스업의 경우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할 경우, 비교대상 국

가 모두에서 한국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룩셈부르크나 일본의 경우에 각각 4배, 3.9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7] 국가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성비교(환율적용) (단위: 지수<한국=100.0>)

국 가	제조업				서비스업			
	'95	'98	'00	평균	'95	'98	'00	평균
한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오스트리아	209.3	184.9	161.9	181.7	289.4	293.3	269.3	282.9
덴마크	200.1	161.0	135.3	159.7	272.6	278.5	263.2	271.2
프랑스	230.6	199.2	-	-	280.1	284.5	-	-
독일	206.4	168.8	137.9	166.1	281.0	289.0	267.7	278.9
그리스	75.2	61.5	50.9	60.9	152.1	157.7	154.5	155.1
이탈리아	148.7	117.1	94.5	116.7	219.4	222.1	202.2	213.9
일본	295.8	243.9	213.2	247.6	390.6	399.1	372.4	387.5
룩셈부르크	264.5	223.9	200.7	228.0	417.0	433.8	381.7	409.2
네덜란드	216.2	176.2	-	-	220.8	225.4	-	-
싱가포르	166.6	140.5	133.2	145.6	227.4	234.1	235.8	232.7
대만	100.8	84.3	73.9	85.2	160.5	182.9	175.8	172.5
미국	226.1	192.8	169.7	192.6	224.5	241.6	231.3	231.1

자료: 생산성본부, 『국제생산성비교』, 2002. 정병순(2004)에서 재인용.

출처: 정병순(2004)에서 재인용.

<표 8>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분류의 노동생산성 수준 비교(95~'00)

(단위: 제조업=100.0)

국 가	제조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업	기타 서비스
한국	100.0	31.0	91.8	142.4	59.2
오스트리아	100.0	68.5	105.4	191.7	75.8
덴마크	100.0	83.0	125.1	212.3	74.4
독일	100.0	58.4	114.0	217.6	74.6
그리스	100.0	130.5	134.6	374.3	108.3
이탈리아	100.0	91.0	164.2	219.0	70.2
일본	100.0	71.3	103.9	341.3	72.4
룩셈부르크	100.0	68.0	126.2	169.2	78.3
싱가포르	100.0	84.0	108.4	180.2	47.2
대만	100.0	76.5	132.7	329.1	99.3
미국	100.0	58.6	104.3	132.1	48.7
캐나다	100.0	40.2	80.4	126.0	53.4
프랑스	100.0	66.2	97.6	163.7	61.7
네덜란드	100.0	63.0	113.1	108.6	58.5

자료: 생산성본부, 『국제생산성비교』, 2002.

출처: 정병순(2004)에서 재인용.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식집약성으로 인해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는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의 경우인데, 지난 95~2000년 사이에 동 업종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생산성을 보였음. 가령, 일본과 같은 경우 6배에 달하는 생산성 차이를 보였음.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

□ 서비스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발굴하고 제거하는 노력

- 무형의 자산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독과점의 문제를 초래하기 쉬운 서비스의 성격상 그간 다양한 규제시스템을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임.
 - 업종별 시장진입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조사·분석한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김재홍, 2002), 2001년말 서비스업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여전히 제조업보다 높은 진입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들 일반적 진입 규제 외에 가격이나 업무상의 규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유무형의 규제가 존재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112개 과제를 발굴하여 서비스 분야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 서비스업 규제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가 더딘 만큼 여전히 규제발굴 및 시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제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제도 시정

- 제도적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으로는 비즈니스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 제조업과의 차별적인 적용이 존재한다는 점임.
 -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중소기업 범위 규정상의 차별이 존재하는 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은 중소기업의 범위가 좁게 책정되어 중소기업

에 대한 많은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대한상공회의소, 2003).

- 제조업의 경우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으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 규정은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100~300인, 매출액 100억~300억원까지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²⁾
- 2001년 이후 각종 세제지원 대상에 서비스업을 추가시키는 등 개선이 있어왔으나 높은 성장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창업 및 R&D 지원제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추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금융지원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서비스업의 경우 무형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이 결여된 여건에서 금융지원에서 중요한 요건인 신용상의 취약성으로 이어져 왔음.
- 2002년 이후 시설자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저부가가치 업종인 도소매업종이 시설자금 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산업별 시설자금 변화추이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4	'94-'03 증가율
전산업계	21,661	24,972	27,521	30,272	33,641	34,997	38,458	38,270	54,801	58,166	58,711	1.69
제조업	11,096	12,244	13,261	13,253	12,755	11,935	12,522	12,305	18,023	20,032	20,408	0.81
서비스업	1,625	2,303	2,826	2,792	4,772	6,996	7,957	10,359	18,483	20,985	21,576	11.91

2) 가령,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업의 경우 100인 미만, 매출액 100억 이하로, 기술서비스업의 경우 200인 미만,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산업자원부).

- 서비스업 인적자원과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정책 필요
- 마지막으로, 제도적 차원과 관련하여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서비스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인적자원과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정책이 미흡하다는 점과 창업보육기능이 미약하다는 점임.
 - 제조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이나 훈련기준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편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이나 훈련기준이 거의 확립되어 있지 못해 인적자원의 양성에 적지 않은 제약이 되고 있음.
 - 직업훈련의 경우에도 총 204개 직업훈련 가운데 서비스업에 관련된 것은 7개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모두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임(대한상공회의소, 2003).
 - 전국 292개 중기청 창업보육센터에 4,020개 기업이 입주(2003. 12기준)해 있는데, 이중 서비스분야 특화는 24개소(8.2%)이며, 서비스업영위 업체는 733개(18.2%)에 불과함.

영리성의 확대와 수도권 입지규제 합리화 필요

- 지금까지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제도의 시정과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특히 교육, 의료, 법률 등 형식적으로는 개방되어 있지만 각종 규제로 사실상 미개방 상태에 놓여 있는 업종들은 과도하게 보호됨으로써 경쟁력 향상 노력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개방화를 통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상승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중앙 차원에서의 규제완화 노력과 함께 지방세제의 개선과 입지제공 등 유인책 강화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특히 서울과 관련하여 보면, 첨단제조업이나 고급 서비스업의 경우 인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입지 규제의 합리화가 시급한 과제임.

정세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jseeun@sdi.re.kr